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학년도  
석사학위논문

##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 비교연구

Th.M. 과정 조직신학전공

이 해 명

#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 비교연구

지도교수 : 목 창 균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 0 0 4    년    월    일

서 울 신 학 대 학 교 대 학 원

Th.M. 과정 조직신학전공

이 해 명

이 해 명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04년      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 II. 존 웨슬리의 종말론 -----7

A. 죽음과 영혼불멸 -----	8
1. 지상의 인간 -----	8
2. 죽음과 영혼불멸 -----	13
B. 사후영혼의 상태 및 연옥의 문제 -----	15
1. 사후영혼의 상태 -----	15
2. 연옥의 문제 -----	16
C. 부활과 심판 -----	18
1. 그리스도의 재림 -----	18
2. 부활 -----	19
3. 심판 -----	21
D. 하나님의 나라 -----	25

## III. 존 칼빈의 종말론 ----- 29

A. 죽음과 영혼불멸 -----	29
1. 죽음 -----	29
2. 영혼불멸 -----	30
B. 사후영혼의 상태 및 연옥의 문제 -----	31
1. 사후 영혼의 상태 -----	31
2. 연옥의 문제 -----	35
C. 부활과 심판 -----	37
1. 그리스도의 재림 -----	37
2. 부활 -----	40

3. 심판 -----	45
D. 하나님의 나라 -----	48
1. 영원한 축복 -----	49
2. 영원한 저주 -----	51
IV.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 비교 -----	53
A. 죽음 -----	53
B. 죽음 이후의 상태와 연옥의 문제 -----	54
C. 부활과 심판 -----	56
D. 하나님의 나라 -----	58
V. 결 론 -----	62
참고문헌 -----	67

# I. 서론

##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의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 마련이다. 또한 인간들은 가까운 장래, 혹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두고도 걱정한다. 그래서 한계상황이나 극한 상황에 부딪치면 미래에 관해 한결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물음은 최종적 미래에 대한 물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sup>1)</sup>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미래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희망적이라기 보다는 비관적이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초강대국들간의 핵무기 경쟁에 따른 국제정세와 잦은 국가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자원고갈에서 오는 생태학적 위기, 인구폭발에서 오는 가정의 파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적 위기 등으로 우리의 미래는 가히 절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sup>2)</sup>

특별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분단에 의한 긴장관계로 항상 불안한 생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미래가 있는가? 라고 인류는 질문한다.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보편적 희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신학적 학문이 바로 종말론이다.

---

1) 이원철, " 최근의 세속적 종말론 ", 신학지남, 41권 2집, 1974년 6월호, p.48.

2) Ibid. p.49.

이원철은 세계와 인류의 위기 의식을 생태학적, 생물학적, 자살적 전쟁, 인류의 정신적 종말에서 느끼고 있다.

종말론이란 말은 두 헬라어 단어, '에스카토스(eschatos)' 와 '로기아(logia)' 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전자는 '마지막' 후자는 '논의' 또는 '교훈'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말론은 어원상 마지막 일들에 교훈으로 정의된다. 종말론은 본질적으로 마지막 해결에 대한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현재의 불완전한 경험이 해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충족되며, 구원에 대한 욕구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자들의 희망이자 소망인 것이다.<sup>3)</sup>

그러나 종말론은 '최후적인 사물에 대한 가르침' 또는 '최후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불리어 온 것으로 기독교 신학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sup>4)</sup>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요 그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풍부하며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비교적 일찍이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사적으로 볼 때 신학적 관심의 주요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었었다. 이러한 종말론이 신학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이후였다. 이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제 3세계의 태동 등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았다.<sup>5)</sup>

이러한 종말론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몰트만(J. Moltmann)에 의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신학적 논의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몰트만은 종말론은 이제 기독교 교훈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모든 선교, 실존, 그리고 교회의 전체 특성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신학은 그 미래의 목표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따라서 종말론은 신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망의 지평과 미래의 차원과 종말의 관점에서, 종말은 시작이요, 신학의 근거라고 하며, 종말론이 기독교의 진리를 여는 근본적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sup>6)</sup>

이렇게 기독교 신학에서의 종말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

3)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1998), p.9.

4) J. Moltmann, 「희망의 신학」, 전경연, 박봉량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pp.13-14.

5) 목창균, 「종말론 논쟁」, p.10.

6) Moltmann, 「희망의 신학」, pp.13-14.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실제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사변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여러 논리나 사고체계로 서술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종말 사상은 말씀과 십자가를 떠난 기복적 사상과 혼합하여 참기독교의 종말 신앙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종말론 연구가 뜻하는 바는 성도들로 하여금 내세에 받게 될 영생과 상급을 소망으로 갖게 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며,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복음 전파의 사명의 중요성을 알게됨과 동시에 성도들이 근신하며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sup>7)</sup>인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 많은 폐해와 혼란을 겪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sup>8)</sup> 이러한 한국교회의 종말론과 관련된 혼란과 왜곡된 이단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세기말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종말론 사상을 말씀과 십자가의 토대 위에 정립하지 않은 것과 종말론에 대한 바른 교육, 그리고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서의 예언과 묵시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은 이제 종말론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sup>9)</sup>

그러므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과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바른 교육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바른 정립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적 종말 사상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과 같

7) William Hendriksen, 「내세론」 오성종 역 (서울: 세순출판사, 1979), pp.26-28.

8)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1998), pp.10-11.

9) Ibid.



은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적 구원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야 하는 동시에 반드시 성경적 종말 사상의 바른 교육과 이해를 정립시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닫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신학자인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신학을 세운 존 웨슬리와 장로교회의 신학의 모토(Motto)가 되는 존 칼빈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활동하던 18세기 영국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이성의 시대였다. 이것은 이신론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이신론은 이성으로 종교를 재해석하고 성서의 특수계시를 부인하여 종교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계제조업자와 같이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신으로 묘사하였다. 둘째는 영국의 산업혁명시대였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노동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현장에서는 3분의 1이 5세에서 8세의 소년과 소녀들이었다. 주거환경은 어둡고 답답하고 병들기 쉬운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22세에도 미치지 못하였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웨슬리가 일으킨 영적 부흥 운동은 그 당시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가운데에서 그의 종말을 주제로 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

칼빈 또한 16세기 당시 카톨릭의 지옥과 연옥 사상으로 부질없는 사고를 마음대로 하고 재세례파의 계시적 관념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의 종말에 관한 교리는 그의 교의학 제3권 성령론을 끝맺을 무렵인 25장에 그리고

---

10) 김흥기,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5), pp. 39-43.

9장에 약간 언급되어 있고 재세례파의 열광적 종말기대와 사후 문제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쓴 논문인 “Psychopannychia”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웨슬리와 칼빈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종말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구체적인 종말론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종말사상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인은 웨슬리와 칼빈이 언급하고 있는 종말론의 체계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제시하여 이제는 종말론이 기독교 교리의 부록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요 정점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동기요 분명한 목적이다.

##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신학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감리교와 성결교회의 신학인 웨슬리 신학과 장로교의 신학인 칼빈의 신학일 것이다. 본 논문은 종말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학의 두 거장인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 사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싶다. 종말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웨슬리와 칼빈 간의 서로의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웨슬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웨슬리의 설교와 일기인 웨슬리총서를 중심 자료로 그의 신학 중에서 잠재되어 있는 종말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그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웨슬리의 주된 종말 사상인 죽음, 사후 영혼의 세계 및 연옥의 문제, 부활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해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

1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서울: 한신대출판부, 1892), p. 218.

또한 칼빈의 종말론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지만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와 주석 그리고 기타 칼빈의 연구의 업적을 토대로 칼빈의 종말론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칼빈의 종말 사상인 죽음과 영혼불멸, 사후 영혼의 상태 및 연옥의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 및 부활과 심판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다루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 사상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진술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루어 보았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한국교회의 종말 이해에 대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II. 존 웨슬리의 종말론

웨슬리는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웨슬리 자신이 종말 사상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그의 주된 관심사는 종말론보다는 구원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웨슬리 시대 때에는 종말론이란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sup>12)</sup> 종말론이란 신학적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84년이었다. <sup>13)</sup>따라서 신학계에서 웨슬리의 종말론에 관한 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설교나 신약성서 주해, 그리고 일기와 편지를 통해 종종 종말론의 주제인 죽음, 중간 상태,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하였다.<sup>14)</sup> 특히 웨슬리는 종말에 관하여 여러 편의 설교를 하였으며 그의 신약 주해에는 종말에 관한 많은 성구들이 해석되어 있다. 특별히 우드(Skevington Wood)는 “ 심판에 대한 주제가 웨슬리의 메시지의 우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이상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일기의 내용을 분석할 수 없다 ”<sup>15)</sup>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단지 하나의 부흥사나 설교가로만 보고 그에게는 신학이 없다고 하는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진정한 목회자인 동시에 진정한 신학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웨슬리의 중심사상은 “ 의인과 성화 ”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종말론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웨슬리의 논문과 설교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발견되

---

1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457.

13)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1998), p.83.

1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57.

15)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6), pp,340-341.

는 웨슬리의 종말론적 사상들을 찾아서 살펴보고자 한다.

## A. 죽음과 영혼불멸

### 1. 지상의 인간

#### a. 삶의 목적

웨슬리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거부하였다. 그는 논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당신이 영원 불멸의 종교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당신은 거기서 먹고 마실 수만은 없다. 당신은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빠질 수는 없다. 당신은 단지 세상적인 것들만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안개의 걷힘같이 사라지고 만다.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흥미를 가질만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분리되기 때문이다. 결코 회복될 수 없도록 파괴된다.<sup>16)</sup>

웨슬리는 위와 같이 그리스도인 또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지상생활의 궁극적 의의와 가치와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 하였다. 이와 관계된 것을 이번엔 설교에서 찾아보자

당신들은 자기 영혼에게 단 하나의 행복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만드신 분과의 일치,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 ”(요일1:3)을 가지는 일, 한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입니다.<sup>17)</sup>

---

16) Works VIII. p.195.

17) 존 웨슬리 총서, Vol. 1권, p.215.

웨슬리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맡기신 역사를 끝내고 아버지의 집에 올라 갈 때까지 잠시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며 낯선 고장에서 몇날 동안을 보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입니다.<sup>18)</sup>

그렇다면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웨슬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설교 “인간론”과 “마음의 할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 태양 아래 있는 어떤 것, 즉 창조되어진 피조물 속에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지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창조된 것이다.<sup>19)</sup>  
당신들은 마지막 때까지 유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영원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에 따르는 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이외의 일을 갈망하십시오. ----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근원임은 물론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무슨 이유, 무슨 궁극적 목적도 가지지 마십시오.<sup>20)</sup>

이와 같이 웨슬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

---

18) 총서, Vol. 2권, p.128.

19) 총서, Vol. 2권, 35 ; 128-129 ; Vol. 9권, p.286.

20) 총서, Vol. 1권, p.215.

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영원을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론”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가지 목적, 즉 영원을 위해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것을 위해 주어졌고 계속되고 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sup>21)</sup>

즉 웨슬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무한성을 인정하면서 비록 지금은 유한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현실에서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가 무한한 세계 곧 영원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웨슬리가 말하는 인간 삶의 목적은 영원을 위한 준비이며 이 준비를 위해 정진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b. 삶의 자세**

웨슬리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청지기와 같다고 보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매우 많은 관점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천지의 소유자이신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대단히 많은 부분, 더구나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히 우리의 것이 아니며, 사실상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덧없는 호흡이 콧구멍을 통하고 있는 동안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는 그

---

21) Works VII, p.229.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직분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던 그 모든 재산의 역할은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산은 모조리 다른 손에 넘겨지고 “해 아래 행하는 일에 다시는 분복이 없습니다”(전도 9:6).<sup>22)</sup>

이와 같이 웨슬리는 모든 재산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재산 자체는 덧없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생존해 있는 동안 자기의 생명 유지 및 주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물질세계 지향적 삶보다는 오히려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음에 그의 “산상설교XI”의 한 구절을 살펴본다.

그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되 그대의 영혼으로 하여금 확신과, 근심과, 부끄러움과, 의욕과, 두려움과, 끊임없는 기도로 인한 고민을 가짐과 동시에 그대의 말을 올바르게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힘써 하나님의 뜻과 정결한 생활과, 경건과, 자비의 길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행하며, 매사에 있어서 그대 자신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대의 오른 손을 베어버리고 세상 재물과 친구와 그 밖에 이 땅위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가지십시오.<sup>23)</sup>

이와 같은 설교로 보아 한마디로 성서적인 생활자세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와 같은 자세인 것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자세로 생활해온 웨슬리는 위와 같이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였다.

### c. 삶의 방법

그러면 이러한 생활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웨슬리는 바울의 신

---

22) 총서, Vol. 2권, pp,389-390.

23) Ibid.



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약 성서의 빌립보서 1:6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그들 “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리라 ”는 신념인 것이다. 당신들을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성결케 하기 시작하셨고, 또 계속하시어 마침내 영광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함이라.<sup>24)</sup>

이러한 그의 사상은 “ 산상설교 XIII ”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또한 이 목적, 즉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영원을 준비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본받으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 표준으로도 지혜로운 자이니, 그 이유는 그의 집을 반석, 즉 영원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짓기 때문입니다.---- “ 나는 지금 육체 가운데서라도 사랑의 삶---- 거룩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그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sup>25)</sup>

그래서 예수께서도 “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라고 말씀하셨으며, 웨슬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무지, 사악, 불행 가운데서도 가깝게, 그리고 겸손히 계속하여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어 그의 영혼 위에 지식과, 성결과 기쁨을 넣어 주고 마침내는 그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 받기에 이를 것이다.<sup>26)</sup>

---

24) 총서, Vol. 6권, p.166.

25) 총서, Vol. 2권, pp.35-36.

26) 총서, Vol. 5권, p.244.

## 2. 죽음과 영혼불멸

웨슬리는 인간을 육과 영혼이 결합된 피조물로 보았다. 즉 그는 성서적 (마10:28)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인간론”이라는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난(영혼) 무엇인가? 물러볼 필요도 없이 난 육체와는 다른 성질의 그 무엇이다. 내 육체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 몸이 죽을 때 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 그 후에도 전애와 같이 생생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몸이 흙으로 변한 후에도 스스로 움직이며 사고하는 이 요소는 그 모든 열정과 감정들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 진실로 지금 이 몸은 영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현재 상태는 확실히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부활한 후에 또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sup>27)</sup>

이와 같이 그는 육체와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의 분리와 영혼불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과 육체의 부활과 불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웨슬리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sup>28)</sup>로 보았으며 죽음이란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이와 관계된 부분을 더 살펴보자

당신들 중에서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한번 분리된 영혼이 육체의 흙장막 속에서 다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론, 모든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현실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육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할진대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분리되겠는가?

이러한 세상적 영혼의 껍데기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던 지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sup>29)</sup>

---

27) Works VII, p.228.

28) Works VII, p.229.

이와 같이 그는 죽음과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말 이상은 할 수 없다.<sup>30)</sup>고 말하면서 오직 신만이 이 분리의 순간을 말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되고, 그때 영원히 계속되는 즐거움, 또는 영원히 계속되는 괴로움<sup>31)</sup> 중 어느 한 쪽에 참여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의 육체적 종말로 끝나버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불안과 괴로움, 싸움과 전쟁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한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사건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슬픔과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축제의 사건이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다.<sup>32)</sup>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웨슬리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이해했다. 웨슬리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죽음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불멸을 확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임을 말한다. 그는 “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권리를 얻고 거룩함 즉 성결로 그 자격을 얻는다 ” 라고 하였다.<sup>33)</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웨슬리는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았고 영혼 불멸도 확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죄,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실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났고 그러한 그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영혼은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위의 첫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의

---

29) 웨슬리 총서, Vol. 2권. p.390.

30) Works VII, p.229.

31) 총서, Vol. 2권, p.395.

3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58.

33)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3). pp.344-345.

삶에 대한 목적, 자세, 방법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와 일치된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죽음은 극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 B. 사후영혼의 상태 및 연옥의 문제

### 1. 사후영혼의 상태

인간이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 또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 즉 심판 전에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를 의식하게 하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이곳에서 활동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죽음 직후에서부터 부활 이전까지 영혼이 머무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sup>34)</sup>

웨슬리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죽음 직후에서부터 부활 이전까지 영혼이 머무는 곳을 “중간상태”로 보았다. 이곳에서 죽음 모든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며,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웨슬리는 이러한 중간상태 즉 육체에서 분리된 성도들의 영혼이 거할 처소에 관하여 “부자와 나사로”, “믿음에 대하여”라는 설교와 신약성서 주해에 잘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러나 변화를 보시오! “그 거지가 죽어” : 여기에 가난과 고통의 종말이 왔습니다. - “천사들에게 받들려” : 부자에게 동조했던 어떤 사람보다 더 고상한 종으로 -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 유대인들이 염원하는 주인형의 낙원으로, 그곳

---

3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59.

은 죽음에서 부활 때까지 거룩한 영혼들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생각으로 선한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곧바로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요 그러나 그는 “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곳은 (만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천국의 대기실입니다. 그곳에서 의의 영혼들은 일반적인 심판과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 갈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sup>35)</sup>

위의 설교에서 웨슬리는 죽은자의 영혼의 머물러 있는 중간상태를 언급하였고 그곳을 종종 ‘하데스’(Hades)라고 말하였다. 악인들의 영혼은 하데스의 불행한 곳으로 그리고 선인들의 영혼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 낙원(Paradise, 하데스의 행복한 곳)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중간상태에서는 제2의 선택이나 진로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sup>36)</sup>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정한 처소가 없다면 인간의 영혼도 무소부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웨슬리는 심판이 죽음 직후에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 후에 있다고 하였다. 중간상태에서는 구분이 있을 뿐이지 아직 심판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심판이 재림 때까지 연기된다 하여도 영혼은 죽음 후에 곧 다가올 종국적 운명을 감지한다고 믿었다.<sup>37)</sup>

## 2. 연속의 문제

위에서 웨슬리가 말한 중간상태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은 영혼 수면설이다. 이는 몸의 사망과 부활 사이에 영혼이

---

35) Works VIII, 246-247 ; 총서, Vol. 5권, p.196.

36)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pp.344-345.

37) Ibid.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에 깨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이다. 카톨릭에서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연옥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는다. 연옥은 세례를 받은 후 범한 가벼운 범죄를 씻고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는 문자적인 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sup>38)</sup> 웨슬리는 바로 이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웨슬리는 대심판 전에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가 있을 중간 상태, 즉 낙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연옥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블랙올(George Blackall)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낙원에서는 선한 사람의 영혼이 쉬임을 얻으며,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이것은 모든 점에서 천주교의 연옥과 전혀 다릅니다. 연옥에서는 사악한 사람들이 속죄의 불 가운데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화될 때까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음 뒤에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죄로부터 구원되며, 우리의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sup>39)</sup>

위의 편지에서 웨슬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 외에 죽은 다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즉 연옥에서는 죄인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웨슬리의 중간상태는 믿음이 독실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웨슬리의 중간상태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지 아직 심판은 아니다.

---

38)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p.459-460.

39) Letter VIII, p.168.

결론적으로 말하면 웨슬리는 영혼의 불멸성과 관련하여 육체의 부활 이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중간 상태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중간상태는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의 개념과 다른 것이며 이곳은 “모든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며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 C. 부활과 심판

### 1.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그리스도는 재림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종말 사건의 예기 또는 성취로서 이해한다.

모든 공관복음서는 일차적으로 예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그의 연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마24:25, 막13장, 눅21장) 예수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의 성례를 거행해야 한다고 친히 가르쳤다.(고전 11:26) 신약은 재림을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고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50회 정도 언급하고 있다.<sup>40)</sup>

그러면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께서 지구로 돌아오실 정확한 때를 알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계산은 결실이 없다. 이는 예상된 일이었다. 그의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마24:36-42, 막13:32-33). 만일 날짜를 안다면 많은 사람이 깨어 있고 조심해야 할 일을 그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미룰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그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 아주 강렬하게 흥분하여 나라의 정규적인 일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sup>41)</sup> 그러나

4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p,462-463.

41) 찰스 W, 카터, 「현대웨슬리 신학Ⅱ」 김영선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1092-1093.

예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마24:14)

재림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은 공개적이며 가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호령과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성도들의 영혼은 부활되고 영화된 몸과 재결합할 것이며 아직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신자들은 몸이 순간적으로 영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sup>42)</sup>

그의 재림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첫째로 그는 오셔서 성도들을 영접하실 것이다(마24:28, 요14:3, 살전4:16-17). 둘째로 그는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살후1:10). 셋째로 그는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이다(살후2:8). 넷째로 그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마25:31-46, 살후1:6-10). 다섯째로 그는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딤후4:1).<sup>43)</sup>

## 2.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에 관하여는 웨슬리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설교 “ 죽음에서의 부활에 관하여 ”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부활 뒤에 가질 몸은 영원 불멸하고 썩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즉 이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되어야만 하고, 이 사라질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 영원불멸 ”과 “ 썩지 않음 ”이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 뿐만아니라(왜냐하면 지옥의 망령들도 영원 불멸하고 썩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져온 모든 육체적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몸들은 질병이나 고통, 또는 우리가 날마다 접했던 어떤 불편의 주체가

---

4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63.

43) 찰스 W, 카터, 「현대웨슬리 신학Ⅱ」, p.1095.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 우리 육체의 구원 ” 즉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 그때 의 빛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태양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우리도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를 갖게 될 것입니다.<sup>44)</sup>

웨슬리는 앞에 인용한 설교에서와 같이 죽은 영혼이 천국의 대기실<sup>45)</sup>과 같은 낙원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다가 부활 후에 비로서 찬란히 빛나는 존재, 질병과 고통,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웨슬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였다. 예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만 받아들였다. 또 영지주의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성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몸의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몸이 없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의 몸이 부활 될 것이라는 사실은 창조자가 몸을 인간에게 방해되는 것으로 보시지 않고 축복으로 곧 구원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몸의 중요성을 나타낸다.<sup>46)</sup>

웨슬리는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말하였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이 없고 영혼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부활한다면 그것은 몸과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몸만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하지 않거나 영혼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

44) Works VII, pp,479-481.

45) Ibid, p.246.

46)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461.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예수의 몸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할 것이다. 웨슬리는 성서의 진술대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소유할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47)</sup>

또한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부활한 성도는 또 다시 죽지 않고 모든 악고 질병,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된다. 웨슬리는 “우리의 몸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을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부활의 몸은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sup>48)</sup>

### 3. 심판

웨슬리는 현실 세계를 중요시 하였으나 이것은 현실 세계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영원한 세계와의 상관적 관계 아래서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즉 현실 세계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처요, 훈련도장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대하여 현실 세계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믿었다. 이 종말의 날을 그는 하나님의 “ 찾으시는 날(눅19:44의 ”권고의 날“), 즉 ”주의 날“이라고 하였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대심판의 날“이다. 이 날에 하나님은 인간 창조로부터 이 땅위에서 생명을 붙였던 모든 인간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다.<sup>49)</sup>

이러한 웨슬리의 심판에 관한 의견들은 그의 설교인 “대심판”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이처럼 엄숙하다 해도 이보다 더 엄숙한 장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래지 않아 “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

---

47) Ibid, p.462.

48) Ibid.

49)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185.

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 “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에 “ 우리는 각각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sup>50)</sup>

웨슬리는 위의 설교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언급을 했다. 웨슬리는 그 사건들을 대심판 전, 대심판, 대심판 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웨슬리에 의하면 대심판 전, 즉 우리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전에 하늘과 땅위에는 여러 가지 이변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자연계의 징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 아래로 땅에서 표징을 보일 것이다. ”-----  
“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지진에 의하여 “ 모든 섬들이 도망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 “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 물위에서 솟아나 물 가운데 있는 땅을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는 폭풍과 거센 바람으로 변할 것이며 ”----- 이러한 소란은 하늘에도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에서도 징조가 나타나 항성과 유성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sup>51)</sup>

이렇게 웨슬리는 대심판 전의 징조로 자연계의 큰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땅이 진동하고 곳곳에 큰 이변이 일어나며 지하의 샘들이 터져 솟아오른다. 대기는 폭풍과 깊은 안개로 가득찰 것이며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을 것이라라고 역설하고 있다.<sup>52)</sup>

둘째로 대심판의 날을 웨슬리는 “ 복수의 날”이라고도 하였다. 왜냐하면

---

50) 총서, Vol. 2권, p.342.

51) 총서, Vol. 2권, pp.343-344.

52)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1998), pp.84-85.

하나님께서서는 이 날에 일어나사 그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동시에 그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기 때문이다. 이 날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언자에 의하여 들려진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때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는 ‘인간들의 날’이다. 이 날이 지나가면 “주의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 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 창조 이후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과 또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심사하려면 적어도 여러 천년의 시간을 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53)</sup>

웨슬리에 의하면 이 심판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임명되어 생존자나 이미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또한 최후의 심판의 날 심판 받을 자는 누구며 그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남녀노소, 생사화복의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수효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심판주의 심판하시는 방법과 그 순서에 관한 웨슬리의 견해를 살펴보자

각 사람은 주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의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선안간에 직고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도 그대로 폭로될 것입니다. 그는 어두움 가운데 숨긴 일 뿐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의혹도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른 것과 각 사람의 인품과 선악을 분명히 틀림없이 판별하실 것입니다.<sup>54)</sup>

그는 인간의 직고에 따라 먼저 오른편 원편으로 분리되고 그 후에 각각에 대하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의 판단 기준은 의적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내적인 율법에 의해서다. 이와

---

53) 총서, Vol 2권, p.345.

54) 총서, Vol. 2권, pp,346-347.

같은 판별에 의해서 각 사람은 구분될 것이고 각각에 대하여 의의 보상과 악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 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 그들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말이나 행동의 모든 좋은 것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 의인은 그의 지난날의 죄과로 인하여 고민하고 부끄러워함보다 도리어 즐거워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의인을 판단하신 후에 왕은 그의 왼편에 있는 무리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 그리하여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와 축복의 선언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두려운 선고를 할 것인데, 이 선고는 하나님 보좌의 움직일 수 없음같이 다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sup>55)</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심판은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으로 나뉘어진 다. 심판날에 각 사람은 심판석 앞에서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할 것이며, 그들의 속마음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주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면죄와 축복의 선언을, 왼편에 악인들에게는 정죄의 선고를 내리신다는 것이 웨슬리의 견해이다.<sup>56)</sup>

셋째로 웨슬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입각하여 대심판 후에는 창조된 세계의 멸망을 믿고, 새 세계의 창조를 소망한다. 웨슬리는 심판 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서적 입장에서 신중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창조의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 목적은 새 예루살렘성을 만들어 완전무결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곳은 다음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

---

55) Ibid.

56) 목창균, 「종말론 논쟁」, p.85.

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sup>57)</sup>

지금까지 웨슬리의 설교인 “대심판”을 근거로 심판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런 그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의 계시를 발견하여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웨슬리에게는 죽은자의 확실한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웨슬리는 더욱더 죽음 이전의 신자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심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며 그 심판에 대한 철저한 신자의 신앙생활을 강요하였다.

그의 종말 사상은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중요하다. 웨슬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바른 믿음 생활과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더 나아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그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활 신앙과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C.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주석을 살펴본다.

---

57) 계시록, 21:3-4.

“천국” -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두 말에 불과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 하늘에서의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상태를 또한 뜻한다. 하늘 영광의 소유를 뜻한다가 보다는 그 소유를 위한 적절한 성품을 뜻한다. “가까워왔느니라” -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이 말한 나라(단2:44,7:13-14), 즉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려 한다고 말한 것 같다. 이 구절은 본래 복음의 경륜과 이에 의해 건설될 사회를 의미한다. 복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이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는 처음에는 땅위에 존속하지만, 나중에는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되어 있다. 성서의 어떤 구절에서는 이 말이 땅위에 있는 상태를 더 의미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영광의 상태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포함한다.<sup>58)</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웨슬리의 신국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심령의 상태이다. 그러나 웨슬리의 신국은 보이지 않게 내재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도 미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사실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또 현재의 종말의 표징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슬리 역시 현재는 저 미래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현재에 대해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 즉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의 긴급성과 배타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시켜 주고 있다.<sup>59)</sup>

한편 웨슬리는 신국은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확장되며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라고 부를 때 즉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2:20)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비로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열리고 천국과 같은

58) 총서, Vol. 5권, pp,34-35.

59) 총서, Vol. 9권, p.260.

생활이 시작된다.<sup>60)</sup>

따라서 웨슬리는 이 땅위에서 천국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상에 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강력히 역설한다. 또한 웨슬리는 의인에 의하여 천국이 시작됨을 말하면서 이러한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그리스도로 자기의 마음을 채울 때 온전해지고 이 때 비로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리 안에 영광의 희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전일 때, 그가 우리 마음의 온전한 소유자가 될 때, 그가 우리 안에서 모든 감정의 주가 되어 경쟁 없이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모든 삶을 즐긴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sup>61)</sup>

즉 웨슬리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을 행할 때 천국이 나타나고 확장되며, 사랑 안에서 온전해 질 때, 천국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지상 천국을 사랑의 나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보고 ‘이 사랑의 종교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있는 종교’<sup>62)</sup>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하게 되며,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모든 거룩한 성품의 샘으로서 거기에서 온유, 겸손 등의 미덕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 즉 그리스도교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의 본질이다.<sup>63)</sup>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다음의

---

60) Works VI, p.430.

61) *Ibid.*, p.431.

62) 총서, Vol, 9권, p.287.



짧은 구절 속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성품과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 영혼 속에 잔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한 사랑으로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sup>64)</sup>

이러한 상태를 그는 완전한 성결,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하나님 나라”라고 보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웨슬리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삶의 현재 시간을 앞으로 도래할 왕국의 궁극적인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금 결단이 가능한 것은 그 왕국이 이미 현존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대되었기 때문이고 준비가 진행 중인 것은 그 왕국이 우리 희망이 목표로서 아직 미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현재적 은사는 우리를 궁극적 운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종말론적 은사이며, 궁극적 유산을 맛보는 것이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관계를 변혁시키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세계를 초월한 새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계의 모든 소유물이 상대적이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

63) *Ibid.*, p.292.

64) 총서, Vol. 9권, p.153.

### Ⅲ. 칼빈의 종말론

#### A. 죽음과 영혼불멸

##### 1. 죽음

루터가 신앙의 신학자라 한다면 칼빈은 희망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칼빈의 모든 선언들이 미래에 관심을 둔 것이며 루터보다 칼빈이 종말론적 색채가 강하며 칼빈은 내세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5)</sup> 칼빈에 있어서 죽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하늘나라의 삶을 갈라놓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이다.<sup>66)</sup> 칼빈은 분명하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설명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과 육의 싸움의 종식이며 그 때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sup>67)</sup> 칼빈에게서의 죽음의 이해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 즉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이 인간이 맞게 되는 죽음이란 현상이다. 칼빈은 누가복음 12장 50절을 주석하면서 죽음을 물속에 잠시 잠겨있는 것으로 비유하며 하늘의 영광과 복되고 영원한 평안히 비취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죽음을 인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sup>68)</sup> 딤후4:6 주석에서도 죽음을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죽음이란 영혼이 몸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그러기에 죽을 때 전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며 자신의 신체로부터 나누어지는 것뿐이다.<sup>69)</sup>

이것은 지상의 순례자가 외국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는 것

65) Heinrich Quistorp, Die Letzten Dinge Imzegniss Calvins, 이희숙 역, 「칼빈의 종말론」(서울: 성광문화사, 1990), p.17.

66) Ibid.

67) Ibid., p.80.

68)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 「칼빈성경주석」 전40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신약 제2권 공관복음 2, p.372.

69) 존 칼빈, 「디모데후서주석」 4:6 신약 9권, p.602.

과 같다고 하였다. 칼빈은 사후에 영혼의 존속을 믿었으며 죽음은 육을 최종적으로 죽이는 것이며 영의 완전한 부활이다<sup>70)</sup> 라고 설명하였다.

## 2. 영혼불멸

칼빈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라는 독자적인 그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가지고 있는 실체로 본다. 그는 성서의 명백한 증언에 따라 영혼은 본래적으로 실체이며 육체와 분리된 후에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1)</sup> 또한 영혼이나 사람의 영은 육체와는 구별되는 실체라는 것이다. 몸이 간접적으로 생성과 출생을 통하여 창조된다면 영혼은 육체의 출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다. 즉 하나님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직 영혼이 존재치 않으나 인간이 형성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시며 그때 생명의 씨가 확장되어간다<sup>72)</sup>는 것이다.

칼빈은 영혼이 불멸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창조된 실체라고 말한다. 영혼은 불멸적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육체는 아래에서 오고 영혼은 위로부터 오며 그리고 육체는 세상의 진흙으로부터 오고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 있는 호흡에 의해 생명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동물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신비한 능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3)</sup> 또한 육체는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육체와 영혼은 하늘과 땅같이 다르므로 말미암아 하늘이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하늘의 영혼은 이 땅의 육체와 멀어진다.<sup>74)</sup>

70)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80-81.

71) Ibid., p.62.

72) 존 칼빈, "Psychopannychia", in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 by Henry Beveridge, 23:172. (Grand Rapids: Eerdmans, 1958). (H. Quistorp. 62 재인용) 이하 Psy로 약한다.

73) Ibid. 28:181.

74) Ibid. 55:197.

여기에서 칼빈은 육체와 영혼의 연합 상태에 있어서 긴장관계를 알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은 실제로 선한 것인 동시에 보다 고상한 부분이기 때문이다.<sup>75)</sup> 세상 적인 육체는 영혼을 부여받은 단순한 동물적 육체이지만 부활 시에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sup>76)</sup>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불멸성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따라서 진정한 불멸성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있는 것이다.

## B. 사후 영혼의 상태 및 연옥의 문제

### 1. 사후 영혼의 상태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칼빈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불멸인 영혼은 죽음 속에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영혼은 이미 육체 부활의 기대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며 또한 육체의 부활은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sup>77)</sup>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들의 최후의 정죄를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가르친다.<sup>78)</sup> 구원받은 영혼들의 상태는 이중적이고 모순되는 면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된 후에 안식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음 속에서 평화에 도달한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평화의 상태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칼빈은 이 안식을 가리키는 말이 “잠”이라는 성서적 표현이라는 것이다.<sup>79)</sup>

---

7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63.

76) 존 칼빈, 「베드로전서 주석」, 1:9, 신약 10권. p.354.

77)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14.

78) Ibid.

79) Ibid. p.115.

당시의 재세례파는 영혼의 “잠”을 영혼의 완전한 파멸과 죽음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라고 할 때에 칼빈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칼빈에 있어서 “잠”이란 안식이다.<sup>80)</sup> 하지만 영혼의 안식은 한가한 여가가 아니다.

죽음과 최후의 심판사이의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 시작한 영혼의 발전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칼빈은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부분적으로만 맛보던 평화를 육체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보다 높은 평화를 통하여 성화되다가 복된 부활에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다.<sup>81)</sup>

칼빈은 궁극적 목적인 심판의 날을 향한 영혼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82)</sup>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영혼은 양심의 평화 속에서 안식한다. 칼빈은 눅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은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며 실화 또는 일련의 상징으로 본다.<sup>83)</sup>

이 아브라함의 품은 죽은 후의 영혼이 온전하게 될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이같이 안식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위에서 순례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그를 보지마는 그 때에는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온전히 그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접근하게 될 것이다.<sup>84)</sup>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이 죽을 때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낙원으로 영접한다. 죽은 후의 영혼 즉,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안식하면서 의식을 가진 상태에

---

80) Ibid., p.116.

81) Ibid.

82) Ibid., p.118.

83) Psy., pp.430-431.

84) 칼빈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뵈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뵈게 되는데 그의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며 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서 심판날에 그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택함 받은 영혼들의 무리 속에서 친교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간상태에서 영혼이 안식하는 것은 완성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드러날 때에만 우리들 자신도 완성될 것인데 이 완성은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sup>85)</sup>

일반 부활 이전에 우리들은 이 축복을 이미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부활의 사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영혼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축복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감추어진 생명의 완전한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받는 축복은 다만 그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영혼에서 시작된 것이 몸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칼빈은 “Psychopannychia”에서 말하고 있다.<sup>86)</sup>

택함 받은 영혼들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 그들의 영원한 첫 열매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몸으로부터 분리되었거나 죽을 수도 없는 타락한 영혼들은 포로로 갇혀서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무섭게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25장 6항에서 유다서 6절을 논하면서 “버림받은 자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불의 맛을 미리 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칼빈은 영혼의 잠의 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 속에서도 안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sup>87)</sup>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타락한 영혼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심판의 예감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불안한 영은 그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

---

8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124-125.

86) Ibid. p.127.

87) Ibid. p.130.

과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sup>88)</sup>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죽음이란 차분한 잠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 저주받은 영혼이 사후에 갖는 무서운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경건한 신자가 받게 될 축복은 하늘나라의 안식이라는 것이 칼빈에게는 명백하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것과 같이 사후의 경건치 않은 영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최후의 심판 시에 영원한 불속에 들어갈 때에 이 고통은 최고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sup>89)</sup>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상태가 잠정적 축복이라면 경건치 않은 영혼 즉 타락한 영혼의 상태는 잠정적 저주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어거스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거스틴의 종말론은 여러면에서 칼빈의 종말론에 영향을 주었다. 어거스틴은 신자의 영혼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사후에 예기의 상태(state of expectation)속에 있고 또 죽은 자의 나라에서는 기쁨의 장소와 슬픔의 장소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sup>90)</sup>

인간은 단순히 죽음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성서의 증거는 영생의 소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인간 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칼빈의 사후 상태에 대한 설명도 성서적으로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91)</sup>

루터의 경우는 부활이 소망에 있어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사후에 영혼의 상태는 중요치 않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이 단순한 잠이 되었다는 것을 성서와 함께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도 시편 21편을 주석 하면서 저주받은 자의 고통을 묘사하며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sup>92)</sup>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죽음과 잠과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에 관한

---

88) Ibid.

89) Ibid., p.131.

90) Ibid., p.132.

91) 퀴스트로프의 「칼빈의 종말론」에서 퀴스트로프는 칼빈이 성서를 많이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상태와 불멸에 대한 가르침에서 성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92) 전경연, “루터신학의 제문제”,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11권, 1986, p.157.

가르침은 일관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잠”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는 어떤 의식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생각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의 저서 안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퀴스트로프는 지적하고 있다.<sup>93)</sup>

루터의 개념과 칼빈의 개념사이의 차이는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는데 성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전체성을 칼빈보다 루터가 더 예리하게 알고 있다.<sup>94)</sup> 여기에 비하여 칼빈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불멸교리를 그의 종말론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칼빈의 표현은 “잠정적 축복”과 “잠정적 저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연옥의 문제

연옥의 문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대립하는 문제이다. 카톨릭에 의하면 연옥은 소죄를 가졌거나 죄의 보속을 다 받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보속을 경감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와 회생을 통하여 그들의 보속은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95)</sup>

이 연옥 교리에 있어서 아직도 카톨릭은 형식상으로는 연옥을 교리화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또 의미 부여를 좀 더 현세적 민중적 차원에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칼빈은 죽음과 부활사이에 영혼의 특별한 상태가 있는 것과 그것이 부분적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연옥교리아말로 중대한 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며 강박한 호기심으로 이 교리를 만들었다고 카톨릭의 연옥 교리를 비판한다.

칼빈은 죽은 자들에게서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다고 신명기 18:21을 들어 강조한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

93) Qusistorp, 「칼빈의 종말론」, p.140.

94) *Ibid.*, p.141.

95) 박도식 편, 「카톨릭교리사전」(서울: 카톨릭출판사, 1992), p.136. 여기서 말하는 보속이란 고해성사로 죄사함을 받은 죄에 해당하는 벌을 말한다.



거짓말이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며 연옥교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고 부숴버리는 것이다. 연옥교리는 보속이라는 것 때문에 생겼으므로 보속이라는 생각을 부숴버리면 연옥자체도 뽑혀진다.<sup>96)</sup>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보속과 유일한 속죄와 유일한 정화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연옥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서운 모독에 불과하다 라고 단정짓는다.<sup>97)</sup>

칼빈은 카톨릭이 연옥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반박한다. 마12:32, 막3:28-29, 눅12:10, 빌립보서와 계시록 마카비 후서에 대하여 강요 3권 5장 7항과 8항에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카톨릭이 결정적으로 내세우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불 가운데 구원 얻는다는 구절에 대하여는 강요 3권 5장 9항에서 집중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

강요 3권 5장 10항에서는 보속과 연옥을 증명하려고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관습과 교회전례라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칼빈은 연옥과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비 성서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옥교리를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들이 비열한 장사를 하여 그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sup>98)</sup>

결론적으로 서술하면 칼빈은 카톨릭의 연옥설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옥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교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 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칼빈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신앙인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가 된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영원한 축복이나 영원한 저주에로 향하는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궁극적 성취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나간 일들에 대한 평가의 변동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

9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3.5.6.

97) Ibid.

98) Ibid., 3.5.10.

## C. 부활과 심판

### 1. 그리스도의 재림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특징지운다. 이 임재는 그가 영광을 받고 승천한 주가 보이지 않는 전능한 상태에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에서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하늘과 세상을 좀더 효과적인 능력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sup>99)</sup>

#### a. 재림의 기대

칼빈은 신약성서의 종말의 긴박성보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증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sup>100)</sup> 심지어 칼빈은 만약에 사도바울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알았다 해도 불경건한 관심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 진정한 대망으로 그들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의 관심은 신자들이 “보초 근무를 하는 병사처럼 강한 기대의 상태 속에<sup>101)</sup> 준비하여 계속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데 있다.<sup>102)</sup> 재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예언으로 계산하여 그때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sup>103)</sup>

칼빈은 베드로후서 3장의 임박한 종말기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천년이 하루 같은(벰후3:8)”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날은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 하지 말고 깨어있어 기다려야 하며<sup>104)</sup>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신자

---

99) Ibid, 3.16.14.

100)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26.

101) 존 칼빈, 「데살로니가전서주석」, 5:1, 신약 6권. p.458.

102) Ibid, 4:15.

103) Ibid, 5:1.

104) 존 칼빈, 「데살로니가후서주석」, 2:2. 신약 6권. p.492.

들은 마지막날이 동터오는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마지막날을 기대하는 것은 칼빈의 아내가 죽으면서 한 말에 근거한다. 그는 그의 아내 죽음에 대해 파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오! 영광의 부활이여, 오! 아브라함과 모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오랫동안 모든 성도들은 당신을 희망했으며 어느 누구도 속아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의 신뢰도 당신에게 있습니다.<sup>105)</sup>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의 축복은 칼빈에게 있어서 인격적 기대에 좌우된다고 본다. 재림은 기대 즉 희망에 강한 강조를 하고 있다.

#### **b. 재림의 표적**

재림의 표적으로 칼빈이 언급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문제인데 적그리스도는 루터와 함께 교황권으로 동일시하고 있다.<sup>106)</sup> 그는 네로(Nero)와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로 보려는 암시를 금하고 있으며 요한1서 안에 언급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복수는 적그리스도의 큰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다.<sup>107)</sup> 적그리스도는 왕국이나 하나의 체제로 나타난다. 이 배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려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적이다.<sup>108)</sup>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다. 칼빈은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징이 교황제도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sup>109)</sup>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성서 안에서 하나님께 돌리

10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12.

106) Ibid, pp.160-161.

107) 존 칼빈, 「요한일서주석」 2:18. 신약 4권, pp,211-213.

108) Ibid.

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옛날부터 교회 안에 있던 악이 발전되어 드러난 것이다. 사단이 은밀하게 조용히 교회를 분쇄하는 것이다.<sup>110)</sup>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는 복음의 전파가 끝난 다음에만 출현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는 이미 교황제도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sup>111)</sup>

그리스도의 미래의 재림은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찬란하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나라의 수립, 즉 하나님의 통치권의 수립을 의미한다. 그의 나라는 지상에서는 비천한 육 밑에 숨겨졌다가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신성의 무한한 권능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의 신적 영광과 그의 나라의 영광이 지상의 현상이 아닌 초월적 현상일 것을 지적한 것이다.<sup>112)</sup>

그날에 전체의 피조물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재림사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께서 오실 때 세상의 헛된 자랑을 모두 흠으실 것이요 그의 영광의 광채가 위대함을 흐리게 할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sup>113)</sup>

그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섭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일에 너무 깊이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적이 침입해 오듯이 심판 날이 닥쳐올 것이다.<sup>114)</sup> 그 때에는 온 세상이 그의 무서운 엄위를 반영하는 그의 외침의 메아리로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할 것이므로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죽은 자들이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

109)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167-168.

110) Ibid., pp,169-170.

111) Ibid.

112) Ibid., pp,172-173.

113) 존 칼빈, 「디도서주석」 2:13, 신약 4권. p.410.

114)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75.

것이다.<sup>115)</sup>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의 잠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필요에 따라 원수들을 견제하기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때 가서는 공개적으로 그의 법정에 오르셔서 천지간에 완전한 질서를 확립하실 것이요 원수들은 발 밑에 묶어두고 신실한 자들은 영원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의 무리에 합류될 것이며 마침내 그 사건 자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주신 목적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 줄 것이다.<sup>116)</sup>

## 2. 부활

기독교 강요 3권 25장은 최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12항 분량이며 그의 구원론은 최후 부활의 장에서 절정에 달한 느낌을 준다. 칼빈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크리스찬 소망의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sup>117)</sup>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내세의 동참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sup>118)</sup>

우리 모두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입증시키셨다. 칼빈은 에스겔 37:1-10의 환상에 대하여도 부활에 대한 모

---

115) Ibid.

116) 존 칼빈, 「마태복음주석」 25:31, 신약 2권. pp,376-377.

117) 존 칼빈, 「데살로니가전서주석」 1:10. 신약 6권. p.424.

118) 존 칼빈, 「기독교강요」, 3.25.3.

형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19)</sup>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초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과 영화롭게 될 것의 기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부활은 내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다.<sup>120)</sup>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듯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죽음에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의 죽음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있듯이 그 완성이 그의 부활에 있다.<sup>121)</sup> 우리들의 소망이 확고한 기초를 갖고 있느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에 달려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한 관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 있는 육체적 사실이다.<sup>122)</sup> 부활은 역설적 사건이다.

썩은 육체가 새롭고 보다 높은 상태로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의 모든 개념들을 조롱하는 것이다.<sup>123)</sup> 칼빈은 빌립보서 3장 21절을 주석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땅이나 바다 그리고 다른 요소를 그들의 본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도록 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케 된다고 설명한다.<sup>124)</sup>

부활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체는 본질상 깨끗하지 못하고 마귀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복음 안에는 항상 전인의 구원과 회복이 주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6:20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여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칼빈은 현세와 내세 사이에 있는 중생한 사

---

119) *Ibid.*

120) 존 칼빈, 「로마서주석」 4:24, 신약 7권, p.426.

121) 존 칼빈, 「고린도전서주석」 15:4, 신약 8권, p.426.

122)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82.

123) *Ibid.*, p.183.

124) 존 칼빈, 「빌립보서주석」 3:21, 신약 7권, pp,540-541.

람의 계속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sup>125)</sup>

만일 우리들이 새롭게 다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한다면 육체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 시에 그가 죽기 전에 갖고 있던 것과 똑 같은 몸을 받았다. 만일 지금 우리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하여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른다면 미래에 우리들의 부활도 그의 부활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sup>126)</sup>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그것들의 약속과 함께 우리들의 이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해 주고 있다. 칼빈은 이방인조차도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과 매장의 장소를 잠자는 곳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회상시키면서 부활이 무(無)로부터의 완전하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27)</sup>

또한 영화롭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하여 칼빈은 몸의 본질을 몸의 특질로부터 구별되는 어거스틴의 구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부활에 있어서 몸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나 질적으로는 변화된다.<sup>128)</sup> 우리들의 몸의 기본적인 본질에 관한 한 우리들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특질과 능력면에서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sup>129)</sup>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것의 증거를 끌어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아 있는 상처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박혔던 몸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으로 성별하신 몸이 부활의 소망조차 없이 썩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다.<sup>130)</sup>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의 몸과

---

12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88.

126) Ibid, p.189.

127) Ibid, p.192.

128) Ibid, pp,192-193.

129) Ibid.

130) 존 칼빈, 「기독교강요」, 3.25.7.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혼 뿐 아니라 몸으로도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셨다.(고전6:20) 성경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하리란 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히 가르친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sup>131)</sup>

“이 썩은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고전15:33)라고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만드신다면 이 성질의 변화는 어디서 생길 것인가? 칼빈은 바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 육체가 썩지 않으리라고 약속하므로 새 몸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본다.<sup>132)</sup> 바울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새 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무의미할 것이다.

칼빈은 자연계가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모델에 관한 사도의 논의를 우리들이 몸의 형태로 부활할 수 있다는 좋은 증언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알의 밀알에서 썩이 자라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기 때문이다.<sup>133)</sup>

우리들이 표면적 부활 시에 받게 될 영화로운 몸은 우리들의 현재의 몸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현재의 몸의 특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134)</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네 가지 요소 즉 흙, 물, 바람, 불로부터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다.<sup>135)</sup> 우리의 몸이 본체는 보유하지만 변화가 생겨서 나중 상태는 훨씬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은 성질을 버리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소를 마음대로 지배하실 수 있으므로 흙과 물과 불에게 명령하여 소멸된 것을 모두 복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sup>136)</sup>

---

131) Ibid.

132) Ibid.

133) 고전 15:35-44.

134)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94.

135) Ibid.

136) 존 칼빈, 「기독교강요」 3.25.8.



그러나 현재 몸과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몸은 현재의 몸으로 부터 구별된다. 이 다양함은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 사이의 동일성과 상이성(相異性)을 예증해 주고 있다.<sup>137)</sup> 모든 육체와 같이 인간의 지상 형태의 몸은 가멸적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형태의 몸은 불멸적이다. 자연적 영혼-몸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욕구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영적 몸은 이 모든 약함들을 벗어버리게 된다.<sup>138)</sup>

칼빈은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몸보다 높은 영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는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sup>139)</sup> 칼빈은 또 예수 재림 때에 살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있는 그대로는 영생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후에 산자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변화되어야 하며 가멸적이고 무상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sup>140)</sup> 히 9:27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여기에서의 변화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죽음이다. 본성이 변할 때에는 죽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것은 죽음이라고 불려야 한다.<sup>141)</sup> 무상하고 일시적인 것이 즉시 축복된 불멸로 바뀔 것이다. 이 돌연한 변화가 일어날 때 영혼과 몸의 분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 잘 부합되는 일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sup>142)</sup>

그는 마지막 날의 나팔소리를 그리스도 자신의 목소리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sup>143)</sup> 이제 우리는 불신자

---

137)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194-195.

138) Ibid., pp,196-197.

139) Ibid.

140) Ibid., pp,197-198.

141) 존 칼빈, 「기독교강요」, 3.25.8.

142) Ibid.

143)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199-200.

들의 부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칼빈은 성도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부활까지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강요 3권 25장 9항에서도 불신자의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불경건한 악인들까지 부활시키는가? 그렇다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sup>144)</sup>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러 오신다는 것이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욱 능가하는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체험은 그들에게 더욱 엄중한 정죄가 된다.<sup>145)</sup> 악인이 부활하여 그들이 주와 선생으로 받아들여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46)</sup>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한편에 있어서 그는 부활의 보편성의 기초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불경건한 불신자들은 이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은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화롭게 된 몸을 입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sup>147)</sup>

### 3. 심판

신약 성서에서 최후 심판의 가르침은 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즉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다. 공관복음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 설명했고 가장 극적인 장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앞에 끌려간 예수께서 “자기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올

---

144) 존 칼빈, 「기독교강요」. 3.25.9.

145) Ibid.

146) Ibid.

147)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202-203.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자는 “예수를 저버린자” “예수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sup>148)</sup>

이러한 증거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고 하면서 미래의 심판이 앞당겨져 현재 이미 그 심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독생자를 거절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구속 사역의 최종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sup>149)</sup> 최후의 심판은 온 인류의 심판자인 구세주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징죄함 받은 자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은혜의 심판

선택된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은 궁극적 구속을 의미한다. 칼빈은 그리스도 사업의 성취로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길 좋아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죄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재난에서 구속하셨다,”<sup>150)</sup>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은 그것의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한다.”<sup>151)</sup> 마지막 심판날은 이때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기 때문에”<sup>152)</sup> 성경은 구속의 날로 불리운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이 구속주의 좌석 앞에 서게 되며 복음에 선포된 축복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게 성취되게 된다.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었던 은혜의 은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했나 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

148) 이종성, 「종말론(Ⅰ)」(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228.

149) Ibid. p.231.

150) 존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30. 신약 8권. p.79.

151) 존 칼빈, 「로마서 주석」, 8:23. 신약 7권. p.259.

152) 존 칼빈, 「에베소 주석」, 4:30 신약 9권. p.358.

것이다.<sup>153)</sup>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영원한 축복이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결정된 우리의 존재 의를 드러내게 된다. 그 때에는 우리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며 여태까지 덮여있던 책을 펼쳐서 보상이 있게 된다.<sup>154)</sup>

인간의 보응에 있어서 선 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의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sup>155)</sup> 그래서 의인과 공적의 보상은 종말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적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sup>156)</sup>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하고 배척했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57)</sup> 이것은 박해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큰 힘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창설하고 넓혀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 교회의 봉사에 비례하여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의 나라의 계시와 성취에 동참하며 그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상은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인간의 공로로 보지만 칼빈은 보상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다.<sup>158)</sup>

## b. 진노의 심판

위에서 이미 살펴 본대로 불경건한 자의 심판은 선택된 자의 은혜로운 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택된 자의 부활과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중적 의미로 묘사한다. 이

---

153) 존 칼빈, 「유다서 주석」, 1:21 신약 4권. p.448.

154) 존 칼빈, 「고린도후서 주석」, 5:10, 신약 9권. p.115.

15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49.

156) Ibid.

157) Ibid. p.150.

158)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정음서림, 1976). p.146.

두가지 기능이 종말의 심판날에 집중되어 있다.<sup>159)</sup>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는 적 그리스도가 복음을 경멸하는 자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자라고 특징지운다. 처벌의 정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뿐만이 아니라 그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미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포를 의미하며 그들은 이것에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불의한자들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문을 칼빈은 제기하고 있는데 그 답은 주님께서 그들을 돼지같이 도살할 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고 말한다.<sup>160)</sup>

이러한 점에서 칼빈은 교회에게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권면한다. 그는 단순히 묵시문학적인 삶을 제공하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D.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길의 운명을 걷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전자는 영원한 복의 세계에 들어가고 후자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심판의 결과이다. 여기서 중보자로서의 최종적 행위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명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날에 전체로서의 세계를 위하여 지상의 권위는 폐지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삶과

---

159) 존 칼빈, 「데살로니가전서 주석」, 2:16. 신약 6권. p.435.

160) 존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5:19, 신약 8권. p.436.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종식을 의미한다.<sup>161)</sup>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직접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천사와 교회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다. 물론 의는 찬란히 빛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은혜를 분수껏 누리게 될 것이다.<sup>162)</sup>

여기서 칼빈의 특별한 기독교적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세계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명도하기 전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을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궁극적 통치권은 자기 자신에게 남겨 두셨다는 것이다.<sup>163)</sup>

### 1. 영원한 축복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된 신자들의 궁극적 축복 속에 있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축복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제의 절정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완성을 기쁨함에 있어서 축복과 영광의 두 개념을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구별하기도 한다. 축복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영광은 모든 신자들이 받되 그 받는 분량이 다른 하늘의 보상이다.<sup>164)</sup>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어 이 세상에 그의 길을 시작케 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칼빈의 발전의 이념이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그는 그들을 완전케하여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인간의 구원과 교회의 완성에 대하여 칼빈은 세계 또는 전체로서의 우주

---

161)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231.

162) 존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5:24, 신약 8권, p.440.

163) *Ibid.*, 15:27 신약 8권. p.443.

164)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245.

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완성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완성도 현재의 세계의 존재의 종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만물의 마지막을 초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곧 떠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가 믿는 자들의 구원에 조금도 손실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뛰어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구속은 피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구원의 능력은 죽은 자들까지도 미치기 때문이다.<sup>165)</sup>

칼빈은 인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구별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변화의 관념에 대하여 실체와 질 사이에 동일한 구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완성은 과멸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의하여 초래하게 된다.<sup>166)</sup> 즉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그것들은 불에 의하여 정화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불과 폭풍우와 그 밖의 어떤 일들에 관한 논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우리도 역시 새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에 이르도록 분투 노력해야 한다는 권면을 했을 뿐이었다. 그는 하늘과 땅이 불로써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듯이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정화의 단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sup>167)</sup>

이와 같이 성경은 ‘영원한 축복’을 ‘영생’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의인의 상급이라고 보았다. 또 현세에서의 삶도 불완전함이나 혼란스러움 없는 가장 충실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충실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핵심이다.(계21:3) 그런데 천국의 기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도 말하고 있다. 즉 ‘적게 심은 자와 많이

165) 존 칼빈, 「베드로전서 주석」 4:6-7, 신약 10권. pp,443-444.

166)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258.

167) 존 칼빈, 「베드로후서 주석」 3:10, 신약 10권. p.525.

심은자'의 차이인 것이다. 이 추수는 영생이라는 영적 보상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푸는 자들을 영예롭게 함을 말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2. 영원한 저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중대성은 형언할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비유를 쓰게 된다. 예컨대 어둠, 울음, 이를 씹, 꺼지지 않는 불, 심장을 갇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등이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33절에서도 보듯이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와 호흡이 유향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고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맹렬한 불처럼 삼켜 버린다. 둘째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시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주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과 기타 만물이 자기를 향하여 무서운 분노로 타오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했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무의미한 말이 아니다.

또 칼빈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영원한 불은 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다. 즉 불의 상징은 그 형벌이 얼마나 엄한 것이 될 것이냐를 암시해 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참다운 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사야 30장 33절로부터 명백히 나타난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불을 불도록 부채질하는 바람과 비교되고 있다. 즉 폐역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악인들에 대한 고통보다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무서운가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sup>168)</sup>

칼빈은 보이는 피조물이 축복 받은 자의 영원한 지복에 이바지하는 것과



똑같이 경건치 않은 불신자의 영원한 저주에서도 보이는 피조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벌도 역시 육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sup>169)</sup>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위하여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는 곳을 게헤나(Gehenna)라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경건치 못한 불신자들은 이곳을 도망칠 모든 소망을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헤나에서 분명히 저주를 받은 마귀와 같이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sup>170)</sup>

그러나 칼빈은 마귀와 경건치 않은 불신자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 전이나 후에나 보편적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동안 그의 나라를 멸시하였던 반항자들을 그가 그의 재림 때에 분쇄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한다.<sup>171)</sup>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최후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전15:28)”의 말씀으로 마귀와 모든 경건치 않은 불신자들도 최후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추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 할 때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며,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유책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72)</sup>

---

168) 존 칼빈, 「마태복음 주석」 25:41, 신약2권. p.383.

169)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265.

170) 존 칼빈, 「마태복음 주석」 25:41, 신약 2권. p.383.

171) *Ibid.* 11:32, 신약 9권. pp,349-350.

172) 존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1:32, 신약 8권. pp,349-350.

## IV.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 비교

### A. 죽음

웨슬리와 칼빈은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측면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보고 있다. 웨슬리에게 죽음은 한 인간의 육체적 종말로 끝나 버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 불안과 괴로움, 싸움과 전쟁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사건이다. 웨슬리에게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사건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슬픔과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축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73)</sup>

육체적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웨슬리는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로 선포한다. 웨슬리가 보기에 확실한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sup>174)</sup>

마찬가지로 칼빈에게 있어서도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았다.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비참한 삶의 끝이 곧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영과 육의 싸움의 종식이다. 이 싸움은 중생 또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와의 사귄에 있어서 육을 죽이는 고행과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의 삶, 십자가를 참는 삶의 뿌리에 놓여 있다.<sup>175)</sup>

그러므로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면 영혼과 육체의 싸움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죽음은 신자들에게 싸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자유로워진 신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

173) 김영선,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458.

174) *Ibid.* p.459.

175)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57.

칼빈은 주장한다.<sup>176)</sup>

위와 같이 웨슬리와 칼빈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써 비참한 삶을 끝내고 영생으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슬픔과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축제의 사건이고 더 이상 육체와 욕망이 싸울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신자들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B. 죽음 이후의 상태와 연옥의 문제

웨슬리는 죽음 직후에서부터 부활 이전까지 영혼이 머무르는 곳을 중간 상태로 보았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중간상태를 모든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며,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77)</sup>

이와 같이 웨슬리는 영혼불멸성과 관련하여 육체의 부활 이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물 중간 상태가 있다고 보았다. 웨슬리가 가르치는 중간상태의 개념은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 웨슬리는 천주교의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 외에 죽은 다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다. 연옥에서는 죄인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웨슬리의 중간상태는 믿음이 독실한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중간상태에는 구분이 있을 뿐이지 아직 심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78)</sup>

한편 칼빈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곳을 칼빈은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여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주장한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품”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철학적으로 해석한

---

176) 존 칼빈, 「빌립보서 주석」 1:6, 신약 7권. p.474.

17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59.

178) Ibid.

데 반해 순수한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기 후손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위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으며 죽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안식의 처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sup>179)</sup>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대화를 통해 믿는 영혼들은 육체를 떠나 이 세상이 아닌 어떤 곳에서 기쁘고 복된 생을 보내게 됨을 본다. 그러나 버림을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다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두려운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180)</sup>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칼빈은 죽음과 일반부활 사이에 특별한 상태가 있는 것과 그것이 부분적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옥의 교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의 특별한 계시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람들이 직면하는 심판인 것이다.<sup>181)</sup>

칼빈은 연옥과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죽음과 함께 문은 영원한 축복, 또는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결정적으로 열린다. 그후에도 여전히 궁극적 완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내려진 판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sup>182)</sup>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웨슬리와 칼빈은 죽은 후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있다고 했으며 웨슬리는 그곳을 중간상태 즉 선한 영혼이 휴식을 취하며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칼빈 또한 그곳을 죽은 영혼이

---

179) 존 칼빈, 「누가복음 주석」 16:19, 신약 1권. p.574.

180) Ibid., p.575.

181)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102.

182) Ibid., pp.103-105.

평화에 도달하는 곳 즉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카톨릭의 연옥설에 대해서는 웨슬리와 칼빈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웨슬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 외에는 죽은 다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고 칼빈은 죽은 자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또 이미 내려진 판정이 변경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죄를 짓고 죽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갱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다.

### C. 부활과 심판

웨슬리는 죽은자의 부활을 확신했다.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죽지 않으며 모든 육체적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질병이나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다. 죄를 짓지도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계속된다.<sup>183)</sup> 또한 웨슬리는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말하였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없는 영혼이 없고 영혼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부활한다면 그것은 몸과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몸만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하지 않거나 영혼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설명했다.<sup>184)</sup>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예수의 몸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할 것이다.<sup>185)</sup>

또한 심판에 관해 웨슬리는 1758년에 행한 “대심판”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웨슬리는 그 사건들을 대심판 전, 대심판, 대심판 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대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심판의 징

183) 목창균, 「종말론 논쟁」(서울: 두란노, 1998), p.84.

18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61.

185) Ibid, p.462.

조로 자연계에 큰 이변이 일어난다. 땅이 진동하고 곳곳에 큰 이변이 일어나며 지하의 샘들이 터져 솟아오른다. 대기는 폭풍과 깊은 안개로 가득찰 것이며,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는다. 둘째,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땅 속에서 잠자는 자를 깨울 것이다. 따라서 창세 이래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셋째, 그와 동시에 주께서 천사들을 이땅 사방에 보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전자는 그의 오른편, 그리고 후자는 왼편에 둘 것이다.<sup>186)</sup>

그리고 대심판 후에는 악인 즉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앞에서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유희불 붙는 연못에 던져 질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아픔과 고뇌로 자기들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87)</sup>

칼빈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초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의 기초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성의 사실에 근거시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한다면 죽은자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있다고 설명한다.<sup>188)</sup>

부활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의 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질적으로는 특질과 능력 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몸과 동일하지만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

186) 목창균, 「종말론 논쟁」, pp,84-85.

18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p,472-474.

188)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180-184.

새로운 질(質)을 갖는다. 변화된 상태는 영광스럽고 불멸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sup>189)</sup> 또한 부활 때에는 성도가 생명의 부활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부활인 일반적 부활도 있을 것이다. 일반 부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불신자들의 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한하고 끝이 없는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할 그들의 몸도 영화롭지 못한 몸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sup>190)</sup>

심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은혜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은혜의 심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후의 궁극적 구원을 의미한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곤궁과 슬픔으로부터 참으로 해방될 구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궁극적 승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sup>191)</sup> 진노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는데 경건치 않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포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날이 두려움의 날과 불안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sup>192)</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웨슬리와 칼빈의 견해는 두 사람 모두 죽은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으며 몸의 완전한 부활을 확신하였다. 또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와 경건치 못한 사람을 구별한 심판과 상벌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D. 하나님의 나라

심판 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웨슬리는 심판 다음에 새로운

---

189) Ibid., pp,187-200.

190) Ibid., pp,200-204.

191) Ibid., pp,205-214.

192) Ibid., pp,215-221.

창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모든 피조물은 타락에서 말미암은 악의 현재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새 창조의 세계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으며 죽음과 고통, 질병과 슬픔, 이별과 울부짓음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결합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가 있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이다.<sup>193)</sup>

웨슬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후에는 “아담이 낙원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나은 성결과 행복의 순수한 상태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본 새 하늘과 새 땅 즉 눈물, 고통, 죽음이 없으며, 또한 더 이상의 죄가 생겨나지 않는 세계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sup>194)</sup>

또한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였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위에서 성도의 심령 속에 이미 이루어진다고 말한다.<sup>195)</sup>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현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 가운데서 살고 있다.<sup>196)</sup>

이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며, 그것이 하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것이 영혼 안에 열려진 하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97)</sup> 웨슬리에 의하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천상에서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세의 삶은 영원을 위해 있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 도장이요 준비 장소로 생각하였다. 웨슬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웨슬리 종말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

193)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74.

194) Ibid, p.475.

195) Ibid.

196)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3). p.350.

197) Ibid.



웨슬리의 종말 사상은 이처럼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여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현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적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기보다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로 하여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성화는 현세에서도 단계를 거쳐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sup>198)</sup>

한편 칼빈은 심판 후의 있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완성으로 보았다. 그리스도 재림의 중심적 사건이 초래할 종말 때에 중보자로서의 최종적 행위는 심판 시에 양과 염소를 영원히 분리시켜 놓고 그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명도하는 일이다. 이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이중적인 국면, 즉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징죄라고 말하고 있다.<sup>199)</sup>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은 모든 다른 통치와 권위의 종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권위와 통치권의 종식이고, 마귀와 그의 지배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현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조직과 제도들의 종식을 의미한다. 교회의 기능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교회의 완성과 함께 끝난다. 천사들의 중재적 봉사조차 중단 될 것이고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완전, 즉 성도의 영원한 축복은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의 교제의 절정에서 나온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친교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본성에 참여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때에 하나님은 땅의 현재의 혼란에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창조된 전체 질서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세계의 완전한 변화를 뜻한다.<sup>200)</sup>

---

198)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476.

199) Quistorp, 「칼빈의 종말론」, pp.227-240.

200) *Ibid.*, pp.240-60.

또한 칼빈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죄 받은 자들의 형벌도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에 이바지한다고 가르친다.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인데 반하여,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친교로부터의 단절로 생기는 고통과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아래서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저주는 영원히 죽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201)</sup>

이렇게 웨슬리는 심판 후에 창조될 “ 새 하늘과 새 땅 ”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으며 그 나라는 슬픔과 아픔도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나라는 현재의 신자의 마음속에도 현존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현재의 신자들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심판 후에 있을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완성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후에는 영원한 완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자의 구원도 완성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세계의 영원한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반면에 영원한 저주도 있을 것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

201) *Ibid*, pp,261-268.

## V. 결론

지금까지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다. 우선 웨슬리의 종말 사상은 그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종말 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설교나 신약성서 주해, 편지와 일기를 통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종말 사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가 있다.

그는 자신의 설교인 “인간론”이란 설교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의 분리와 영혼 불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과 육체에의 부활과 불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웨슬리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았으며 죽음이란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죽음 후와 부활 이전까지 영혼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곳을 웨슬리는 중간상태라고 주장한다. 이 중간상태는 믿음이 독실한 자들을 위한 낙원이라고 설명하고 그곳은 구분이 있을 뿐이지 아직 심판은 아니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웨슬리는 죽은자의 부활을 확신한다.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죽지 않으며 모든 육체적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리고 웨슬리는 인간이 부활한다면 그것은 몸과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몸만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하지 않거나 영혼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또한 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대심판”이란 설교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심판 전에는 자연계에 큰 이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창세 이래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다음 주께서 그들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전자는 오른편, 후자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다. 대심판 후에는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며 지옥에서 준비된

유황불 붙는 연못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한 아픔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판 후에는 웨슬리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후에는 아담이 낙원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성결과 행복의 순수한 상태가 생겨날 것으로 주장한다. 이곳을 웨슬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눈물, 고통, 죽음이 없으며 더 이상의 죄가 생겨나지 않는 세계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웨슬리는 말한다.

칼빈의 종말론 역시 죽음은 영과 육의 싸움의 종식이며 그 때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죽음의 이해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 즉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이 인간이 맞게 되는 죽음이란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웨슬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불멸인 영혼은 죽음 속에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영혼은 이미 육체 부활의 기대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며 또한 육체의 부활은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칼빈도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부활 전까지 영혼이 머무르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보았는데 칼빈은 이곳에서 죽은 자의 영혼들이 “안식”한다고 말하고 이곳을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의 안식을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성서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칼빈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초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 부활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의 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질적으로는 특질과 능력 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심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은혜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다. 은혜의 심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궁극적 구원을 말하고 진노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으로 그날은 두려움의 날과 불안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칼빈은 심판 후의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완성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심적 사건이 초래할 종말 때에 중보자로서의 최종적 행위는 심판 시에 양과 염소를 영원히 분리시켜 놓고 그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명도하는 일이다. 이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이중적인 국면, 즉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정죄가 된다고 칼빈은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사상은 비교적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았다는 점, 사후의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영혼은 부활 전까지 머무는다는 것 그리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의 교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 죽은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선과 악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웨슬리와 칼빈은 마지막 심판 후에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웨슬리의 주장은 그의 천국관 즉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는 그의 죽음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다. 그는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죽음을 분리로 이해한다. 영원한 사망(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다. 천국에서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며 지옥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관계성은 현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웨슬리는 칼빈의 성도의 예정된 자, 견인 즉 궁극적 구원의 교리를 배격한다.<sup>202)</sup>

칼빈은 예정된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에

---

202)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p.346.

의한 영원한 완성에 포함될 수 있으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저주, 즉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판자시라면, 그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공의자로서 행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03)</sup>

정리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현세에서 성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볼 수 있고 또한 현재의 신자의 마음속에도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현세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심판 후에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축복의 완성에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웨슬리와 칼빈의 종말론은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 나라”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죽은 자의 확실한 부활과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맥락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종말론에 관한 웨슬리와 칼빈에 대한 생각이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종말에 관한 두 학자의 열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전해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웨슬리가 말하는 종말 사상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로지 앞으로 다가 올 종말 이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매우 인색하고 현세를 극복해야 할 고통과 어쩔 수 없는 절망들 속에서 현재의 삶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간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금 현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

203) 밀드레드 와인콕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p.92.

의 나라를 대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 몇 백억의 대공사를 벌이는 한국 교회는 이제 관심을 소외된 현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인 변형,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종말 사건은 하늘만 쳐다 볼 때에 갑자기 다가오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에 참여의 형식을 빌어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의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은 더 이상의 조직신학의 끝에 나오는 학문이 아니며 신학의 시작임과 동시에 신자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소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일차자료

1. 존 웨슬리 저. 마경일, 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 전10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9.  
1 - 2권 : 표준설교.  
5 - 6권 : 신약성서주해.  
7 - 8권 : 일기.  
9권 : 논문.
2. Jackson, Thomas, ed.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14 Vol. London: Wesleyan-Methodist Book-Room, 1829-31.  
V - VII : sermons totaling 141.  
VIII : essay and letters.
3. 존 칼빈 저. 김종흡외 역. 「기독교강요」 전3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4. 존 칼빈 저.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 「신약성서주석」 전10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5. John, Calvin. *Psychopneumonia in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58.
6. Quistorp, Heinich. 이희숙 역. 「칼빈의 종말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II. 이차자료

1. 국내문헌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정음서림, 1979.
- 김홍기외.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5.
-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김명용. 「한국교회와 종말론」 서울: 총신대학교육부, 1991.
- 김광식. 「조직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김균진. 「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류형기 편저. 「존 웨슬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90.
-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1998.
- 박도식 편. 「카톨릭교리사전」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2.
- 박도식. 「천주교와 개신교」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2.
-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석원태. 「기독교 종말론」 서울: 경향문화사, 1988.
- 이종성. 「종말론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이종성. 「종말론Ⅰ」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881.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설교선집」 서울: 서로사랑, 1998.
- 조향록 편.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78.
- 장기천. 「오늘의 웨슬리」 서울: 전망사, 1991.
- 정성구. 「칼빈주의 연구」 서울: 칼빈주의 연구원, 1992.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 한신대출판부, 1982.
-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한국종교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1992.

## 2. 번역서

- 콜린 윌리엄스. 이계준외 공역. 「웨슬리의 신학-현대적 의의 존 웨슬리

의 생애」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칼 바르트. 전경연 역. 「죽은자의 부활」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91.

찰스 W, 카터 저. 김영선외 역. 「현대웨슬리 신학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다니엘 L. 미글리오리. 이정배 역. 「조직신학입문」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J. Moltmann. 전경연, 박봉량 역.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존 칼빈. 이형기 역.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루이스 벌코프.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의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R. Bultmann . 서남동 역. 「역사와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밀드레드 와인쿱. 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야여방남. 김덕순 역.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93.

윌리엄 캐논. 전중옥 역. 「웨슬레 신학」 서울: 총리원 교육국, 1962.

폴 A. 믹키. 라영복 역. 「웨슬레신학의 요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조지 픽슬레이. 정호진 역. 「하나님의 나라」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William Hendriksen. 오성종 역. 「내세론」 서울: 새순출판사, 1979.

### 3. 일반논문

김홍기. “하나님의 나라-역사신학적 조명” 「기독교사상」 (1992년 3월)

이원설. “최근의 세속적 종말론” 「신학지남」 (1974년 6월)

전경연. “루터신학의 제문제” 「복음주의총서」 11권, 1986.

박형용. “신자들의 부활” 「신학지남」(1978년 10월)

신복윤. “칼빈의 영혼관” 「신학지남」(1975년 12월)

#### 4. 학위논문

고봉선. “칼빈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강동선. “칼빈의 종말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문홍구. “존칼빈의 종말론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현래. “존 웨슬리의 종말론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영민. “존 웨슬리의 구원론과 존 칼빈적 구원론의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A Comparative Study of Wesley's and Clavin's Eschatology

LEE, HAE-MYUNG

Major in Systematic The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Eschatology is fundamentally a faith in last solutions. It is a desire of believers that present incomplete experience to God will be solved, thirsty for God quenched, and desire for salvation realized. However, eschatology related to last teachings has been treated up to now as not so quite important which will come as the last thing in Christian theology.

Also the topic of eschatology in Christian theology has taken up a very significant position, and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but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actual reality called Christ's cross and resurrection, and it is beyond our experiences and speculations, so it can not be definitely concluded.

For that reason, Christian eschatological thoughts can be observed in many aspects that they are mixed with bless pursuing prayful thoughts so true faith of Christian eschatology is distorted. Though the study on eschatology aims at having Christians hold eternal life and upwardness to be granted in the future life, and encouraging them to lead such a life

to get, have them recognize the missionary importance of gospel transmission, behave themselves and pray, distorted eschatological faith causes much confusion to many people.

In these circumstances, inquiring into the theory of eschatology is thought to be meaningful. Especially, researching into the eschatological thoughts of Wesley as the founder of the methodist church, and Calvin as the motto of the Presbyterian church will be a good opportunity awaken a right biblical eschatological thought for those who still have no idea of churches, presbyters, and God.

In Wesley's and Calvin's eschatological thought, relatively same parts are found. Those include seeing death as the separation of soul and body, there being a place a soul enjoys an forever rest, and it stays till resurrection, criticizing purgatorial doctrine in Catholics, being convinced of a death's resurrection, and its good and vice being judged by Christ's second advent on the Judgement Day.

However, Wesley and Calvin show different positions on the things to happen after the Judgement Day. Wesley's view of heavens is that he centered God's heavens on presentness. Wesley means by God's heavens that they can be realized in this world. He explains that a human can see God's heavens in this life, and they exist in believers' mind. However, Calvin contends that if we are not selected by God, we are forced to be judged in eternal rage, and weeded out of Christ's everlasting blessings.

As above, Wesley's and Calvin's theories of eschatology show a bit different opinions in the part of the last one, "God's heavens", but they are described on biblical teachings as a whole, and developed in the same context that a dead person's resurrection and judgement, and everlasting

God's heavens after judgement. There were somewhat differences in the two scholars' perspectives on eschatology, and their passions should be passed on to the hearts of all believers forever.

The eschatological thoughts specially mentioned by Wesley gives a lot of hint to the Korean church. Most Korean churches are very reluctant to achieve God's heavens in the present world thinking God's heavens exist only after the upcoming eschatology, and lead their lives stressing only current life in agonies and despairs to overcome. Now Korean churches should be changed. Not concentrating on only future God's heavens, but expanding God's heavens in this life, they should prepare for the future God's heavens. Now the theory of eschatology should know that it is not a scholarship manifesting itself at the end of organizational theology, but the beginning of theory and an everlasting desire Christians must live cherishing it.